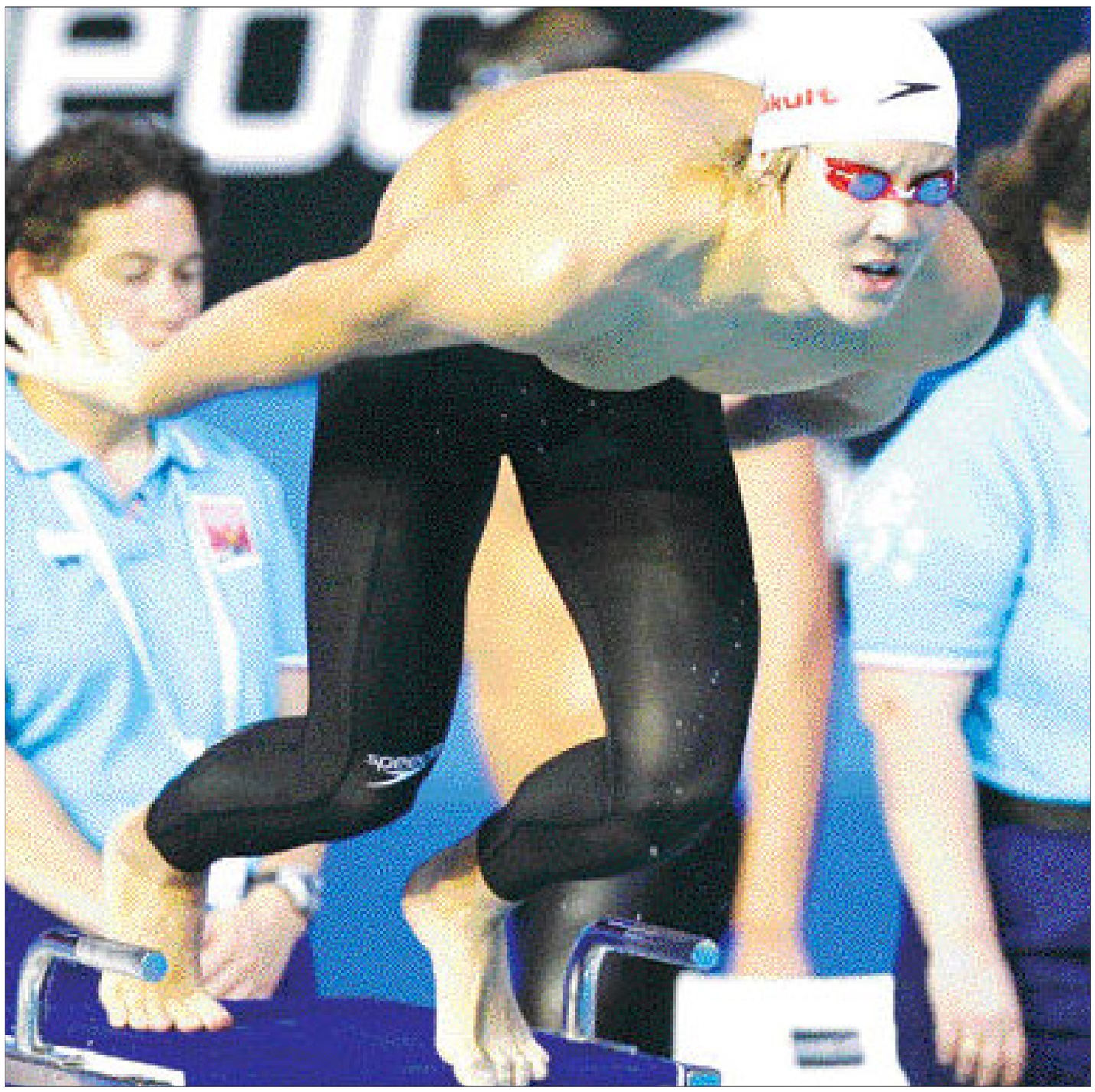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박태환 오늘은 200m서 일낸다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준결서 5위…결승 진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사진)이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5위로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6일 오후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진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 2조에서 1분47초83에 물살을 헤쳐 피터 반 후겐밴트(1분46초33·네덜란드), 마시밀리아노 로솔리노(1분47초44·이탈리아)에 이어 3위로 골인했다.

하지만 준결승 1조 기록과 비교하면 마이클 펠프스(1분46초75·미국), 켄릭 몽크(1분47초45·호주)보다 뒤져 박태환은 전체 5위로 기록됐다.

하루 전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해 한국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은 27일 오후 치러질 200m 결승에서는 2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친다. 5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박태환의 스타트 반응은 역시 최고였다.

0.69초로 준결승 1, 2조를 통틀어 가장 빨랐다.

하지만 바로 옆 4번 레인의 후겐밴트가 처음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바람에 박태환은 초반 페이스 조절에 애를 먹었다.

박태환은 처음 50m를 25초47에 끊으며 후겐밴트(24초52), 로솔리노(24초96), 도미니크 콜(25초28·호주)에 이어 4위로 턴을 했다.

100m 지점까지도 4위를 유지했던 박태환은 150m 지점에서는 1분20초58을 기록하며 후겐밴트(1부18초66), 로솔리노(1분19초48), 도미니크 마이크트리(1분20초48), 콜(1분20초50)에 이어 5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선두 후겐밴트와는 무려 1.92초나 늦은 것이다. 마지막 50m에서 박태환은 '역전의 명수' 답게 스퍼트를 시작했지만 마이크트리와 콜을 따라잡는데 만족하며 세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1조에서는 펠프스가 레이스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더니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바짝 뒤쫓은 몽크가 2위를 차지했다.

준결승 전체 기록을 보면 중국의 장린이 1분48초29로 박태환에 이어 6위에 올랐고 이어 파울 비더만(1분48초43·독일), 니콜라 카시오(1분48초47·이탈리아)가 각각 7, 8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여자 배영 100m 예선 출전한 정유진(성서고)과 이남은(효정고)은 각각 36위(1분03초97), 42위(1분05초01)을 기록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배영 100m의 이승현(삼천포고)도 58초08로 39위에 그쳐 예선 탈락했고, 여자 평영 100m에 나선 정슬기(연세대), 백수연(경기체고)고 26위, 31위에 처지며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멜버른 스포츠 앤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 싱크로 예선에 출전한 김진용(강원체고), 오이택(경성대) 조는 362.40점으로 12위를 기록하며 결승에 진출한 것에 만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선수권 金=올림픽 金

박태환 '베이징 金' 보인다

04년 아테네대회 수영 금 26개중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16개 차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은 올림픽 금메달'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우승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수영계에서는 올림픽 전년도에 치러지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메달 색깔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회로 인식돼 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계영을 제외한 개인종목에 걸린 금메달 2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가 2003년 치러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 돌아갔다.

박태환이 전날 금메달을 따낸 자유형 400m와 26일부터 출전하고 있는 200m의 경우 바르셀로나대회 때 이안 소프(호주)가 우승했는데 이듬해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냈다.

'배영 황제' 애런 페어솔(미국)도 100m와 200m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올림픽에서도 1인자 자리를 지켜냈으며, 일본의 기타지마 고스케도 평영 100m와 200m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올림픽까지 제패했다.

여자부에서도 잉게 드브륀(자유형 50m·네덜란드), 러쉐쥐엔(배영 100m·중국), 오틸리아 예드르제이초크(접영 200m·폴란드), 야나 클로치코바(개인혼영 200m, 400m·우크라이나) 등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올림픽 금메달까지 휩쓸었다.

박태환의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이다. 특히 박태환은 피터 밴더케이(미국), 유리 프릴루코프(러시아), 크레이그 스티븐스(미국), 그랜트 해켓(호주) 등 강자들을 모두 제압했다.

"나 대신 금 많이 캐와"

김연아, 박태환에 메시지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의 미니홈피에 금메달 축하 메시지를 남겨 화제다.

김연아는 26일 박태환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금메달 땄다며~ 추카추카^^ 나 대신 금 좀 마니(많이) 캐와ㅋㅋ"라는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19일에도 'good luck~!!'이라는 응원메시지를 남겼던 김연아는 25일 박태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자마자 축하의 말을 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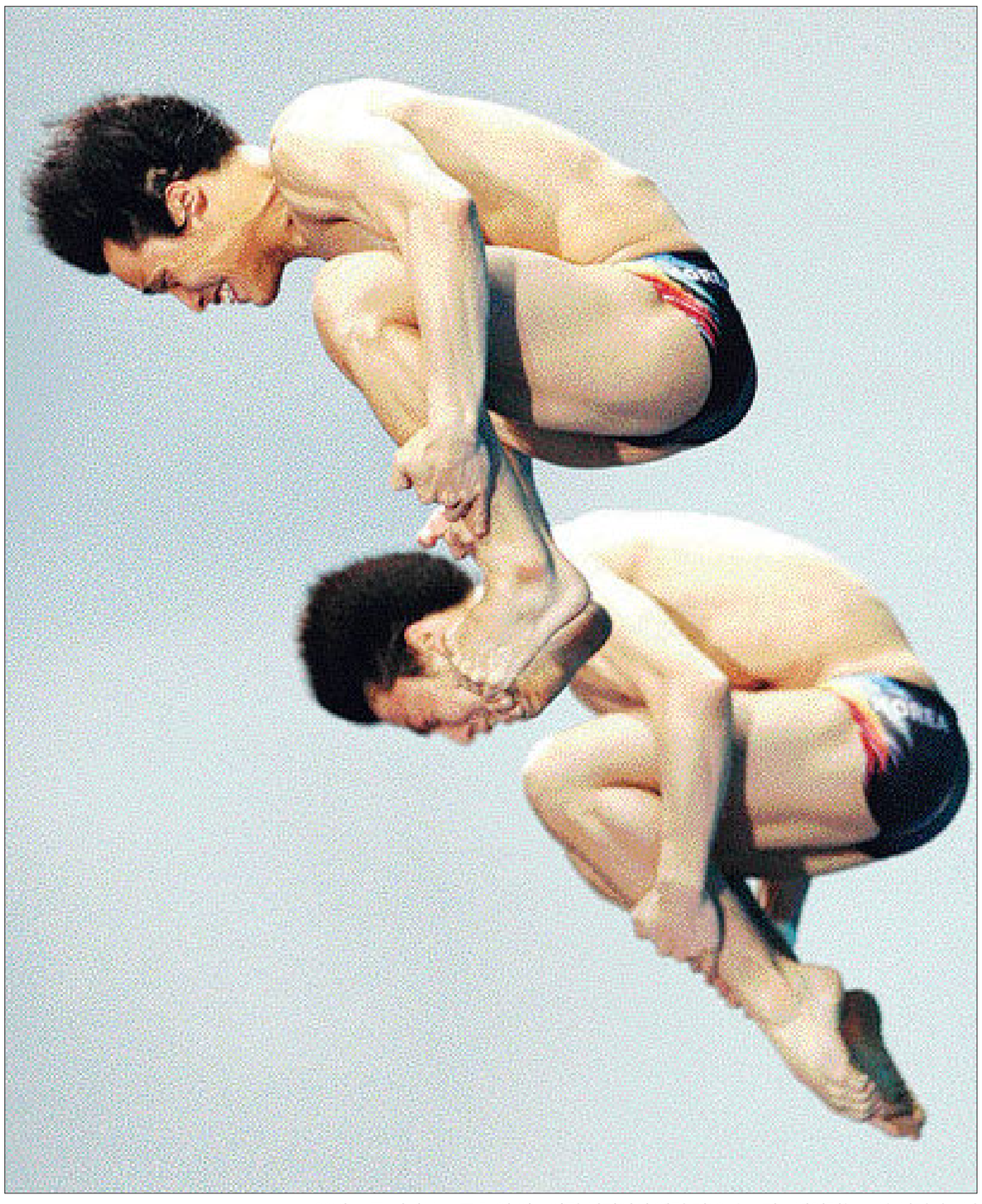
"박태환 위대한 한국인"

국제수영연맹 홈피서 극찬

국제수영연맹(FINA)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경기고)을 극찬하고 나섰다.

국제수영연맹은 2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www.fina.org)에 '위대한 한국인 1위 박태환'이란 제목의 글과 수상식 사진을 띄우고 박태환이 출전한 경기 내용을 상세하게 다뤘다.

FINA는 "만 열일곱살 박태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줬다"면서 "막판에 폭발적인 턴을 한 뒤 라이벌들을 따돌리고 우승했다"고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남자 싱크로 다이빙

26일 호주 멜버른 스포츠 앤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 싱크로 부문에 출전한 김진용(강원체고), 오이택(경성대) 조가 멋진 포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대회 3연패

PGA CA챔피언십 최종

대회 명칭과 코스, 그리고 개최 일정이 모두 바뀌었지만 결론은 예상대로 '타이거'였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CA챔피언십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일궈내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정상 탈환을 예고했다.

우즈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랄리조트골프장 블루코스(파72·7천26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지난 1월 뷰익인비테이셔널 제패에 이어 시즌 두 번째이며 통산 56번째 우승.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19위(1언더파 287타)로 대회를 마쳤다.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3오버파 75타를 쳐 최종 합계 13오버파 301타로 공동 65위의 순위표를 받아 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IOC위원 후보직 사퇴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2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정길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앞두고 개인적 영예인 자신의 IOC위원 선출 문제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에게 후보직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OC는 7월 과테말라 총회에서 3-4명의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김 회장은 고심한 끝에 후보직에서 최종 사퇴하게 됐다. /연합뉴스